주간건설 Review

485호 2017.5.12(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고향 경주 내남면 지진피해 주민 위로
- 금호산업,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공항 확장사업 준공
- 대우건설 직원, 2017 한국의 신지식인상 수상

▣ 건설경제 일반동향

- 건축인허가 면적 감소 추세
- 해외건설수주 하락에 따른 건설수지 급락세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새정부의 주요 공약과 그에 따른 영향
- LH, '기술공모(제안)형 공공임대리츠'의 평가방법 개선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2.15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논란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7.5.6.(토)~2017.5.12(금)> | 제485호 2017.5.12(금)

<업계 동향>

◈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고향 경주 내남면 지진피해 주민 위로



이봉관 회장

○ 5월13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고향인 경북 경주시 내남면 주민을 위해 지진피해 위로 잔치를 마련하였음

○ 내남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는 탤런트 한고은 씨가 MC를 맡고 테너 유정필 교수, 소프라노 한가영 교수 등이 출연해 주민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였음

○ 이봉관 회장은 9·12 지진 이후 600차례가 넘는 여진으로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고향 주민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음

○ 한편, 이봉관 회장의 고향인 내남면은 작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진앙이며, 작년 지진 이후 경주시에 재난 복구지원에 써 달라며 성금 2억원을 쾌척했고 서희건설 봉사대를 보내 피해가옥 수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였음

◈ 금호산업,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공항 확장사업 준공



금호산업이 시공한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공항 여객터미널 전경

○ 5월3일 금호산업은 필리핀 현지에서 발주처(필리핀 교통부) 및 감리단(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자사가 시공한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공항 확장사업 준공식을 개최하였음

○ 총 33개월 공사기간에 걸쳐 준공한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 사업은 팔라완섬의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티에 연간 여객 200만명 처리규모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 신축과 기존 활주로를 확장한 공사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억불 규모로 한국 수출입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한

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되었음

○ 금호산업은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양양공항, 제주공항, 무안국제공항, 두바이 월드센트럴 국제공항, 아부다비 국제공항 관제탑 공사를 시공하며 공항 사업 부문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건설사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왔음

○ 한편, 금호산업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발주될 국내공항 기반시설 및 확장사업 공사 수주에 전념해, 외형 성장과 함께 국내 건설업에서 공항 사업의 강자임을 입증하고 업계 선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대우건설 직원, 2017 한국의 신지식인상 수상

○ 대우건설 총무팀 김현우 씨가 사내 봉사동아리를 이끌고 대외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1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방송신문연합회가 주는 '2017 한국의 신지식인상'을 수상하였음



대우건설 김현우 씨

○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띠'를 맺는 대우건설만의 봉사 이념에 따라 1년 간 봉사할 활동지역을 대별하고 각 시설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예비해 둠으로써 봉사활동 대장정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김현우 씨는 "소외된 내 이웃이 너무 많고, 그들을 위해 베푸는 삶이 결국에는 몇 갑절 더해져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때가 많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음

◈ 건축인허가 면적 감소 추세

○ 5월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건축 착공 면적과 준공 면적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3%, 21.1% 동반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4.1% 감소하였다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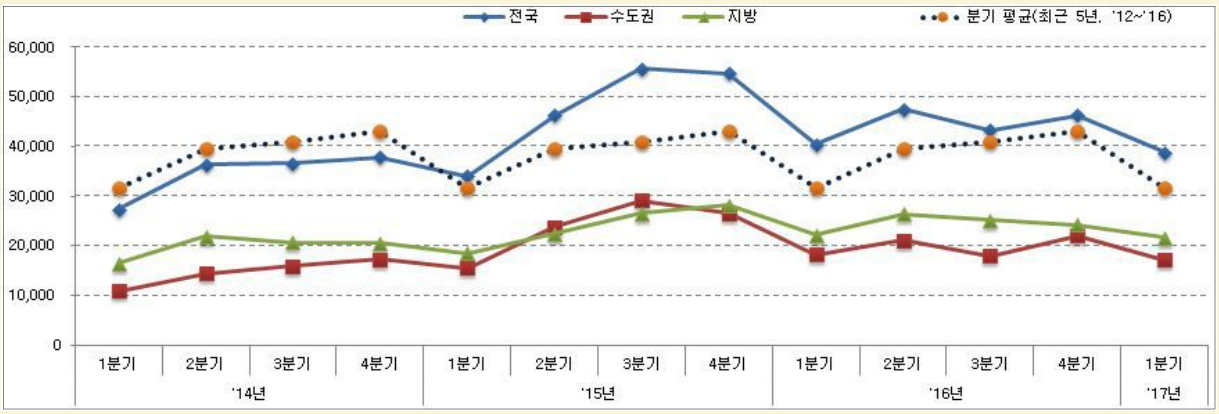
<주요내용>

❒ 건축허가면적 추이

- 올해 1분기 건축허가 면적은 38,755,000㎡로 하락해 전년동기 대비 4.1% 하락하였으며, 전 분기인 2016년4분기와 비교해서는 16.2%의 큰 폭 하락세가 진행 중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13만5000㎡로 전년 동기보다 6.1% 줄었고 지방도 2162만㎡로 2.4% 축소

<분기별 건축허가 추이>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50,261	66,553	58,024	61,768	52,930	73,364	70,121	69,236	58,192	76,156	69,874	70,399	59,605
연면적	27,346	36,319	36,566	37,817	33,999	46,225	55,688	54,738	40,411	47,156	43,230	46,258	38,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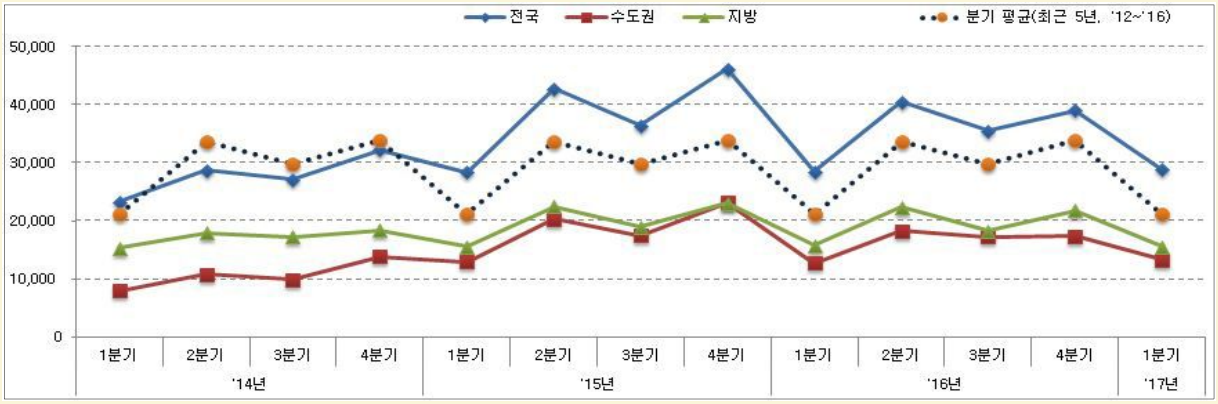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 건축물 착공 추이

-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8,793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3,247천㎡(542천㎡, 4.3%), 지방 15,546천㎡(△182천㎡, 1.2%↓)

<분기별 건축물 착공 추이>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40,433	57,204	50,304	51,154	43,730	65,342	58,254	59,326	47,703	66,002	57,814	59,780	47,167
연면적	23,201	28,659	27,076	32,223	28,361	42,745	36,442	46,193	28,432	40,537	35,489	39,060	28,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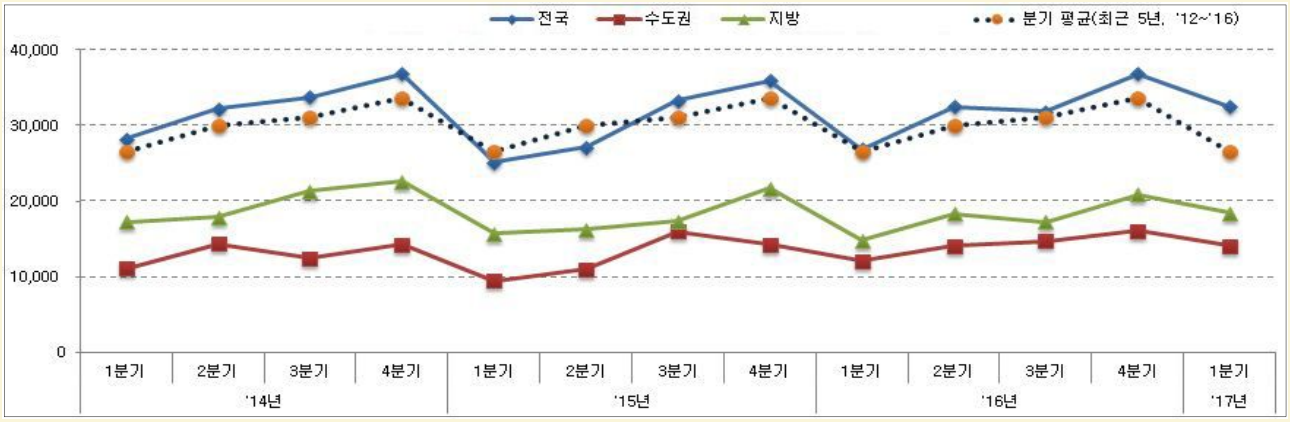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 건축물 준공 추이

- 건축물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32,510천㎡, 지역별로는 수도권 14,092천㎡(1,990천㎡, 16.4%), 지방 18,418천㎡(3,677천㎡ , 24.9%)

<분기별 건축물 준공 추이>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43,112	44,819	53,843	57,183	42,520	45,496	55,795	59,583	44,380	48,970	54,435	59,597	45,800
연면적	28,258	32,184	33,770	36,867	25,136	27,134	33,314	35,896	26,843	32,451	31,880	36,881	32,510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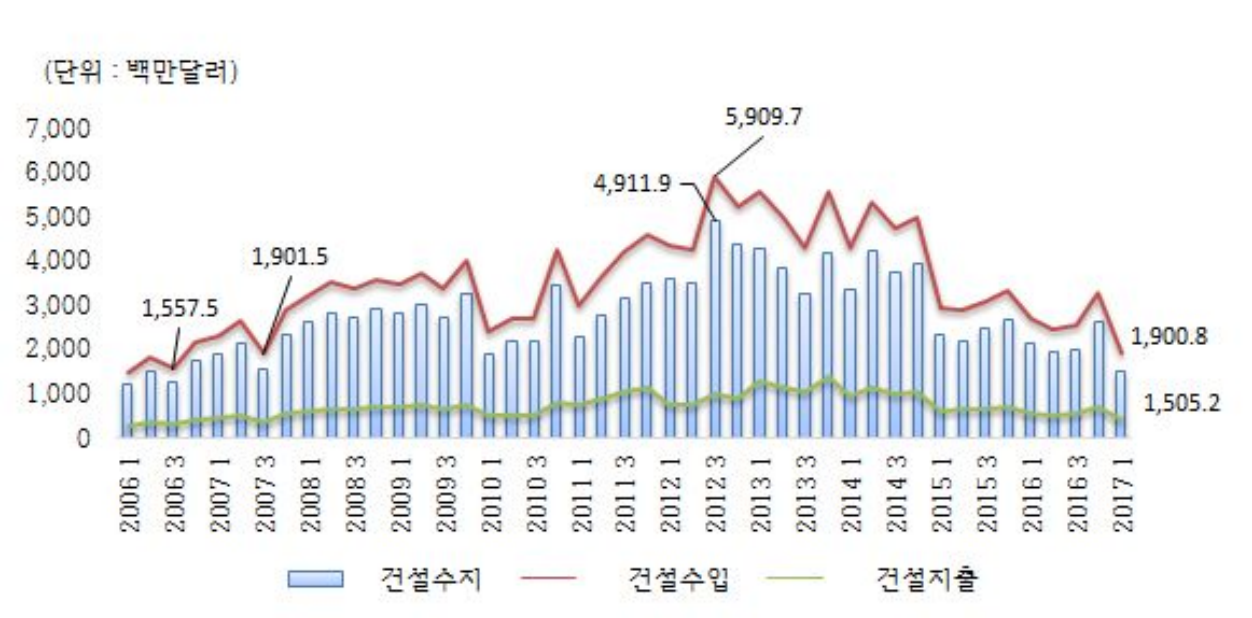
◈ 해외건설수주 하락에 따른 건설수지 급락세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제수지 중 건설수지가 2006년3분기 이래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내용>

- 최근 해외건설수주 하락세에 따라 올해 1분기 국제건설수지는 전분기보다 42.5% 감소한 15.1억달러로 2006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
- 올해 1분기 국제건설수지 중 건설수입은 19억달러로 전분기대비 42.2% 급락하며 2007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20억달러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건설지출은 전분기대비 41.2% 하락한 4억달러로 집계됨
- 건설수입은 국내 건설사가 해외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건설공사의 기성액 수입 등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건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은 수입이며, 건설지수는 건설수입에서 건설지출을 뺀 금액을 의미함

<국제건설수지 추이>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새정부의 주요 공약과 그에 따른 영향

<주요 건설·부동산 공약>

공약사항	주요내용	공약에 따른 영향 등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영역 확대	-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글로벌인프라펀드 확대, 해외진출 금융상품 개발 등 추진	- 해외건설 활성화에 기여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방안 손질 (간접비 산정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	- 적정 공사비 확보로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
임금 직접입금 확대	-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발주자가 직접 임금하는 제도를 공공시장에 우선 정착시킨 뒤 민간으로 확대	- 원·하도급자 간 관리시스템 붕괴 우려
하도급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하도급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하도급업체의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한 공사진행 방해
탈(脫)석탄,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 건설 중인 원전과 화력발전소 공사도 중단시킴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건설 - 대안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설비 가동률을 60%까지 상향 - 신재생에너지 확대(2030년까지 신재생(태양광·해상풍력 등) 발전 전력량이 전체 전력 발전량의 20%까지 높아지는 기반 마련	- 원전과 석탄발전소 공사가 중단되면 수십조원에 달하는 건설비용 외에도 해당 업체와 정부 간 소송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 예상
도시재생 뉴딜 (총 50조원)	- 매년 공적 재원 10조원 투입해 낡은 도심·주거 환경 개선 -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주거지 지원 - 공공 주도로 낡은 주택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대 -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가능성은 불투명 - 민간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공약사항	주요내용	공약에 따른 영향 등
공적 임대주택 공급	- 매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 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확보 - 공공임대주택의 30%(연 4만 가구)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쉐어하우스형 등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 기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확대한 것 - 추가 재원 마련과 부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 - 땅값이 비싼 역세권이나 서울 강남권에 임대주택 공급하는 건 비용 대비 효용도 저하
금융·세제	- LTV(쥬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차단 ※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인상 (GDP 대비 1% 수준 인상안 주장했지만, 대선공약집엔 제외)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위해를 위해선 필요하지만, 주택시장 수요 줄어들어 부동산 거래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 가능
세입자 보호	- 전·월세 상한제 도입 -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 단기적 가격 폭등, 임대주택 물량 감소, 대도시 주거난 악화 가능 - 전세 시장이 안정 국면이어서 효과 크지 않을 것

<대기업 개혁 관련 공약>

공약사항	주요내용	공약에 따른 영향 등
대기업 불공정 갑질 척결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 구성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기업 경영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 가능성 우려

공약사항	주요내용	공약에 따른 영향 등
재벌 불법 경영 승계 근절	- 다중대표소송제 -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도입 -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 -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 기업 경영 자율성 저하와 경영권 침해 우려 - 형평성 논란
소비자 피해 구제책 강화	-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	- 소송 남발 우려
공정한 근로 여건	- 기업 임금 분포 공시제도	- 직종 직급 간 임금격차가 공개될 경우 조직 내 갈등 심화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원칙적 축소 -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 재원 부족 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	-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악영향

◈ LH, '기술공모(제안)형 공공임대리츠'의 평가방법 개선

○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술공모(제안)형 공공임대리츠'의 평가방법 개선안을 마련하여 4월28일 입찰공고한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부터 적용함

○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심사위원들이 평가했던 '사업계획서'(1차 평가 : 개발계획과 재무계획) 중 개발계획만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고, 재무계획은 가격과 함께 LH 계약단이 2차에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는 것

○ 이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술형 입찰공사에서 설계심의를 심사위원들이, 가격 개찰은 계약단이 진행하는 것과 유사하게 개선안을 만든 것

○ 또한, LH는 기존에 입찰참가사가 직접 방문 접수토록 했던 입찰참가 신청서, 공동수급 협정서, 사업신청 확약서 등을 전자 접수로 전환함

<주요 개선내용>

기존	개선안
- 1차 평가(심사위원들이 평가) : 사업계획서(개발계획과 재무계획) 평가 - 2차 평가(LH 계약단에서 평가) : 가격 평가	- 1차 평가(심사위원들이 평가) : 사업계획서 중 '개발계획' 평가 - 2차 평가(LH 계약단에서 평가) : 사업계획서 중 '재무계획' 및 '가격' 평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2.15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논란

○ 최근 국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2.15)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는 민자사업 뿐만 아니라, MRG를 보장해 주지 않는 순수민자사업까지 국감대상에 포함시킨 구조여서 논란이 되고 있음

○ 민자업계는 이에 대해 실시협약 체결 등 정부 승인에 따라 추진되는 민자사업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한 '이중규제'로, 민자사업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내용>

❒ **민자사업의 국감대상 포함**

- MRG 보장여부에 관계없이, 철도사업자 및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